제2호 서수면

서수면마을신문

Seosu-myeon Village Newspaper

• **서수면마을신문** : 전북 군산시 서수면 서수리 항쟁로 198 • **발행처** : 서수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운영위원회 • **신고번호** : 군산시 사00007

서수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복합건물 준공 눈앞에

- 군산시 서수면 청사와 연계한 행정 복지 문화 복합건물로
- 서수면 주민 질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사진: 준공을 눈앞에 둔 서수면 행정문화복지센터〉

서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서수면 청사와 연계한 행정 · 복합건물이 곧 준공될 예정이다.

현재 마무리 공사에 한 창인 행정 · 복합건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하 1층에는 보일러실 과 창고가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 층에는 서수면사무소, 주민들의 만남과 소통의 장소인 북 카페 ,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주민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실 과 주민건강을 책임지는 헬스장이 마련 되였다. 또한, 2층에는 대강당과 다목적회의실이 갖추어져 있고 서수면 들녘을 감상할 수 있는 조망대도 갖추어질 예정이다.

서수면 행정 복지 복합건물은 군산시 서수면 청사를 연계하여 건축된 것으로, 지역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군산시 행정서비스와 다양한 지역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고 가벼운 커피를 마시며 주민간의 만남과 소통을 이어갈 수 있는 북 카페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사진: 북카페 전경〉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사무국장(이정란)은 북 카페를 거점으로 하여 지역민의 소통과 화합에 중점을 두고 그동안 역량강화 차원에서 개발한 막걸리 및 쌀빵등 지역 특산품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서수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비롯한 많은 생산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샵을 만들고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하여 전국적인 유통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운영위원회 체제에서는 보다 오픈된 체제에서 지역주민과 서수면이 발전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찾아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행정 · 복합건물은 농촌 지역의 중심지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올해까지 총사업비 78억 원 을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지역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과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감으로써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서수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위원장(최연호 용성마을)은 이번 복합건물 준공은 서수면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후 농촌 협약사업을 비롯하여 농축산식품부, 전라북도 군산시와 연계하는 규모의 사업을 유치 서수면 경제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편집국〉

서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활동연혁

2016. 03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추진위원회 구성
2016. 05 선진지견학
2016, 07 주민특강. 간담회. 전문가 초청교육.
2017. 01 공모신청
2017. 03 전북도 심사
2017, 05 농식품부 심사
2017. 09 농중활사업 최종선정
2018. 04 운영위원회 발대식
2018. 04 1차, 2차 현장포럼
2018, 05 3차 현장포럼
2018. 06 1차, 2차 소 위원회
2018. 10 행정협의
2019. 01 행정협의
2019. 02 실과협의 전라북도협의
2019. 04 이장단 설명회 주민공청회
2019. 12 지역역량강화 수행사 선정
2020. 04~12 동아리(탁구, 서예, 판소리) 운영
2021. 02~03 바리스타 교육(자격증취득)
2021. 09 마스크제작 및 배포
2021. 10 서수면 통합브랜드 개발
2021. 11 선진지견학, 식품개발, 품평회
2022. 04 서수면주민공동체 교류행사. 선진지견학등
2022. 10 서수면마을신문 창간호 제작
2023. 03 서수면마을신문 제2호 제작

서수면장 이유청

숭고한 선열들의 얼이 서려있고 다양한 산업 활동을 통해 풍요롭고 살기좋고 인심좋은...

안녕하세요.
지난 1월 인사에 의해 서수면장으로 부임한 이유청 입니다.

서수면은 드넓은 평야에서 좋은 미질의 쌀을 생산하는 쌀농업 지역이자 각종 원예 및 특용작물 재배로 다양한 농업 혁신을 선도하는 지역이기도 하며 또한 군산의 대표적인 축산업지역으로 농축업 및 원예 산업이 발전한 고장입니다.
그리고 마룡리에 위치한 동군산 산업단지(구 서수농공단지)에는 식품, 목재, 의복, 금속기계 등 40여 개의 다양한 기업들이 위치한 산업지역 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수면은 춘고 이인식 선생을 비롯한 많은 애국지사를 배출한 곳이자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인들의 착취와 폭압에 맞서 싸운 가장 큰 항쟁인 옥구농민항일항쟁의 시발점인 지역이기도 하며, 상주사, 보천사, 천지사 등의 사찰과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서수교회 등이 있는 종교 및 역사 문화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런 숭고한 선열들의 얼이 서려 있고 다양한 산업 활동을 통해 풍요롭고 살기좋고 인심좋은 서수면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서수면 마을신문이 창간되어 주민들에게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타지역에는 서수면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서수면 마을신문이 앞으로 많은 주민들의 다양한 얘기를 진솔하게 담아주고 지역 주민의 소통의 장이 되어 주기를 바라며 또한 우리 서수면에서 생산하는 많은 농특산물과 서수면의 여러 볼거리, 먹거리 등의 자랑거리를 홍보하는데 앞장 서 주는 신문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코로나 및 경제위기로 매우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서수면 주민 모두가 하나되어 함께 헤쳐나간다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으며 그 함께하는 화합의 장이 바로 서수면 마을신문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서수면 마을신문이 앞으로 우리 지역주민의 자긍심과 희망을 담은 지역 신문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본격적 시작을 알립니다.

서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행정 문화 복지 복합타운으로 청사 건립을 시작한지 6년 만에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신청사로 우리 서수면 주민들의 문화 복지 수준이 향상되고 아름답고 편리한 경관과 시설을 통해 우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행정서비스와 문화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란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농업 생산성 저하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소득 증대는 물론 일자리 창출 나아가 우리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 유산을 발굴 보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 문화적 만족도를 높여 농촌 관광 활성화를 이루고 주민들의 참여와 활동을 유도,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발전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서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려 합니다.

첫째, 농업과 관광의 융합은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적 방안 중 하나입니다. 농업과 관광을 융합하여 지역의 농산물을 홍보 판매하며, 지역의 문화와 자연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써 외부인들의 방문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융합은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내는 효과도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는 특화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육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브랜드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관광산업 등 다양한 부가적인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지역 문화유산은 지역 사람들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는 것이며, 관광 산업과 연계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특색을 강조하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

넷째, 자연 환경은 지역 자원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역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여 관광산업과 생산 활동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지역 내 적극적인 환경 활동은 지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농산물을 이용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등의 방식이 있으며. 식품 가공 산업을 육성하거나, 농촌 체험 산업을 활성화시켜 이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젊은층과 다문화가정에게 창업교실을 열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인드로 우리가 우리지역 위해 한마음이 되어 한 걸음 한걸음 나간다면 우리 서수면은 멀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찾아 올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서수사랑” 이란 캐치프레이즈로 1천명의 서수출신의 회원을 모집 하면서 활성화 사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는 “서수사랑 기부제” 또는 “서수사랑 후원제” 로도 명칭될 것입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을 기대하며 서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위원장 최연호

서수 이엽사 농장의 실체 (二葉社 農場의 實體)

1904년에 한국에 온 가와사끼료타로(川崎藤太郎)는 일본 공사관의 서기관인 하기하라(萩原秀一)의 권유에 따라 옥구군 서수면에 900여 두락(1斗落은 한마지기 논 200평, 밭 300평),약20만평에 이르는 토지를 매입하여 가와사키농장(현 임피중학교)을 설치하였다.

일본 국수주의자인 가와사끼는 서수면(동이면)을 자기 고향인 니이가타현 기타칸바라군(新潟縣北浦原郡)을 모델로 하여 일본화할 계획을 처음부터 추진하였다.

먼저 자기와 뜻이 맞는 가타기리(片桐) 시부다니(澁谷)등 고향 지주들을 서수에 불러들여 농장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기타기리(片桐和二)는 川崎의 안내을 받아 1908년에 옥구군 서수면 뿐만 아니라 익산군 황등과 김제군에 농장을 설치하였으며 임익수리조합(臨益水利組合)의 설립과 운영에 참여하여 2대 조합장에 취임하기도 하였다. 또 그는 달관산(達觀山.현 황등산)을 매수하여 석산(石山)을 개발하여 일본에 가져가기도 하였다.

가와사키는 일인 농부 10인을 불러들여 조선인 소작인들을 감독하도록 하였고 보수로 12정보의 농지에 대한 자작권을 부여 하였다고 한다.

1909년 봄에는 고향의 향토신을 옮기어 하용리(하용전 마을)에 서수신사(瑞穗神社)를 세워 서수면을 일본 자기고향 화하기 위한 정신통제수단으로 일본신도(日本神道)의 위력으로 소작인들을 공포속에 몰아넣어 꼼짝도 못하게 하였다. 군산공원에 세운 군산신사보다 6년이나 앞서서 세운 것으로 보아 가와사키의 제국주의 의식과 면모를 미루어 짐작케 한다.

가와사키농장은 근대적인 대규모 농장이라는 영농조직체에서 보안조직체이고 식민조직체이기도 하였다. 그는 농장을 설치 하자마자 〈실천회〉 라는 경비대를 편성하였고 1910년에는 소작인을 대상으로 금융업을 경영 하려고 〈서수식산조합〉을 설립하여 소작인을 지주 마음대로 예속시켜 조합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니가타 현 출신의 시로세, 가다기리, 히로가와, 마끼등 농장주들의 자본을 모아 2011년 이엽사농장(二葉社農場)을 만들었고 1926년 가와사키가 사망하자 서수의 가와시키농장을 매입하고 이엽사 사무소를 전주부에서 서수부로 이전하였다.

이때 합명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전환한 이엽사농장은 전주부, 삼례부, 황등부, 서수부 등으로 나누어
논 1,000정보(3백만평) 밭 200정보(60만평) 와 1,700명의 한국인 소작인을 거느리는 대 농장으로 군림하게 되었다.

이때 합명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전환한 이엽사농장은 전주부, 삼례부, 황등부, 서수부 등으로 나누어 논 1,000정보(3백만평) 밭 200정보(60만평) 와 1,700명의 한국인 소작인을 거느리는 대 농장으로 군림하게 되었다.

가와사키 사망으로 같은 고향의 사이또오가 총지배인으로 취임하였고 승마를 좋아하였던 사이또오는 말을 타고 달리면서 이엽사농장에 소속된 삼례농장 황등농장 서수농장을 순찰 하였다고 한다.

사이또오(齊藤信一)가 농장을 승마복에 권총을 차고 흰 장갑을 낀 손으로 말채를 들고 의기양양하게 말을 타고 소작인들 마을을 한 바뀌 돌면서 위세를 부릴 때에는 겁에 질린 노인과 부녀자들은 집안에 숨어야 했고 남자들은 고개를 숙여 정중히 인사를 해야만 했다고 한다. 그러나 사이또오는 고개하나 끄덕이는 법이 없었다고 하며 봉건시대 통치자인 영주나 다름없는 오만 불손한 태도였다고 한다.

주식회사 이엽사농장은 하나의 관청이상의 대기업 조직이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엽사농장은 일본내에서도 1,000정보 이상 소유한 지주 수는 북해도에 13명 본토에는 9명에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규모을 집작케 한다.

그럼에도 우리 한반도에는 34명이나 있었고 그 중에서도 전라북도에는 가장 많은 9명이 있었다고 한다. 1위는 구마모토 농장(3,358 정보) 2위 이엽사농장(1,425)3위가 시다마니농장(1,231) 순 이였다고 한다. (출처: 군산문화원. 향토문화 대전)

이와같이 100여년전의 서수면의 불행했던 역사적 과거의 사실을 우리는 배우고 기억하며 이를 승화시키기위한 노력들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며 보다 미래 발전적인 방안을 창출하는데 우리 모두가 힘을 써야 할 것이다. 이에 필자는 2016년 니가타현 문화청에 메일을 보내 현재 이엽사의 존재 유무 및 관련 후손들을 찾아 달라는 메일을 보낸적이 있다.

이에 대한 니가타현 문화청의 대답은 이엽사는 한국으로 자본투입이 많아서 1946년 결국 도산하여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은적이 있다. 1945년 일본폐망으로 빈손으로 도망가기에 바빴을 처지를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 일이긴 하나 “부자는 망해도 3년은 먹을 것이 있다” 는 말처럼 분명 후손들은 잘 살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이엽사 후손들 찾아 기해자의 후손과 피해자의 후손들이 모여 과거우리고장의 역사를 더듬어 가며 순수한 민간차원의 미래 지향적 상호교류을 논해 보고자 하는 생각에서 시도해 본 것 이였다. 물론 시간도 걸리고 자본도 들겠지만 이 또한 우리가 해야 할 필연적인 사안 인지도 모른다.

하나 하나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진정한 교류만이 미래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주 편집부〉

사진 : 나무위키

사진 : 군산디지털문화대전

양일동(梁一東)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정치인

독립운동 시절 김구의 제자로 활동한 후 정치에 입문하여 1980년까지 반공법 등의 제재로 원활하지 않은 정치 생활 끝 5선 의원을 마지막으로 생을 마감하였다. 뜻을 같이한 동지로는 민주화 운동 당시 장준하, 김대중 등이 친한 편이었고 윤보선, 김영삼, 문익환 목사 등 여러 재야 인사들과도 친분을 가지고 있었다.

신민당이 유진산 체제였을 시절, 기존의 타협적인 당의 태도에 반발하는 의원들을 이끌고 선명야당을 위시하여 민주통일당, 즉 제3야당을 창당하여 독자 노선을 구축하였다.

하지만 1965년 양일동 본인이 반공법으로 구속된 적이 있을 정도로 거침없이 국회의원을 탄압하고 반정부 행위를 탄압하는 이중에 선명야당을 위시한 민주통일당을 가만둘 리 없었기에 많은 고초가 뒤따랐다.

1963년 제5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대통령 윤보선은 박정희와 대통령 선거전을 할 당시 '남로당 출신 박정희는 뒤에서 비겁하게 행동하지 말고 남자답게 나와 주먹으로 대결을 하자' 라고 말했을 정도로 박정희에게 격분하여 막말을 한 적도 있다.

박정희 정부시절 독재 타도를 외치며 제3야당 창당을 주도하였다. 김대중 납치 사건 당시 사건에 연루되기도 하였다.
2. 생애[편집]
1912년 12월 30일 전라북도 임피군 동이면 장곶리(현 군산시 서수면 마룡리 하장곤마을)에서 태어났다.

그는 중동중학교 재학 중이던 1930년 광주학생항일운동 동조시위를 주도했다가 학교 당국으로부터 퇴학 처분을 받았으며, 같은 해 3월 오재덕(吳在德) · 이영욱(李永昱)과 함께 중화민국 베이징시로 건너가 백정기 · 정내동(丁來東) 등과 접선, 교류하게 되면서 무정부주의 사상에 경도되었다.

졸업 후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가담하였다가 그는 1931년 일본 도쿄로 건너가 그해 4월 한하연(韓何然) · 최낙종(崔洛鍾) · 정찬진(丁贊鎭) 등의 동지들과 함께 흑우연맹(黑友聯盟)이 주관하는 『흑색신문(黑色新聞)』의 편집위원에 선임되어 무정부주의 사상과 항일의식을 고취하는데 힘썼으며, 1932년 9월에는 마찬가지로 무정부주의 단체인 조선동흥노동동맹(朝鮮東興勞動同盟)에 가입하였다.

1933년 다시 중국으로 건너가 베이징시 소재 민탁고급학교(民鐸高級學校)에 입학하였으며, 그해 5월 오우영(吳宇永) · 이윤희(李允熙) 등 일본 소재 무정부주의 단체 대표들과 연합하여 반파시즘 · 반제국주의 · 반(反)실업 등을 투쟁의 목표로 삼았다. 1934년 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가담하였다가 상하이 소재 무정부주의 단체였던 남화한인청년연맹의 유자명(柳子明) · 정현섭 등에게 『흑색신문』 · 『토민(土民)』 · 『무궤도열차(無軌道列車)』 등의 출판물을 부치면서 연계투쟁의 방안을 모색하였고, 이즈음 아리요시 아키라(有吉明) 중국 주재 일본 공사 처단미수사건으로 백정기 · 이강훈(李康勳) · 원심창(元心昌) 등이 일본에 압송되자 이들의 구호활동에 힘썼다.

그 뒤 그는 조선동흥노동동맹의 기관지인 『뉴우스』의 발행인으로 항일의식을 고취하다가 1935년 소위 출판법 위반 혐의로 30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으며, 1935년에는 전단물을 가지고 일본에 가던 중 그해 11월 3일 일본의 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되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일본 이치타니 형무소에 수감되었다. 복역 2년 8개월만에 가석방되고, 고국으로 압송되어 귀환한 뒤에는 줄곧 농촌운동과 농민교육에 종사하였다.

1945년 8.15 광복 이후 조선건국준비위원회에 가담하면서 이승만의 권유로 정치에 입문하였는데 우익에 소속되었다. 제1공화국 이승만 정부에서는 야당계 무소속으로 제3대, 제4대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민주당과 행동을 같이 하였다.

제2공화국 때는 민주당 소속으로 제5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1960년 12월 14일 다른 민주당 구파 소속 정치인들과 민주당을 탈당하여 신민당에 몸담았다. 그러다가 5.16 군사정변으로 정치규제를 당하였다.

정치규제에서 풀린 이후에는 1971년 제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민당 후보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갑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어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후 진산 파동 때 범 유진산계였다가 따로 자신의 계보를 만들면서 유진산과 사이가 멀어졌다.

결국 1973년 김홍일 등과 신민당을 탈당하여 민주통일당(약칭 통일당)을 창당하였다. 그 해 제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중선거구제 하에서 신민당 정운갑 후보, 민주공화당 민병기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

1978년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선거구에 출마하여 신민당 김제만 후보와 동반 당선되었다.
이듬해인 1979년 5월 선명야당 노선을 내세운 김영삼이 신민당 총재로 취임하자 신민당과 함께 반 유신정권 투쟁에 동참하였다.

그러다가 10대 국회 임기 중이던 1980년 4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자택[5]에서 심장마비로 별세하였다. 그의 별세로 소속의원들과 당직자들의 잇따른 탈당으로 인해 존립마저 위태로워진 민주통일당은 사실상 와해되어 버렸으며, 얼마못가 5.17 내란으로 강제해산 된다.

1983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대통령표창을 추서받았으며, 이어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출처 :나무위키)

축 사

서수면 • 회현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상호 교류 및 홍보등 협력하기로

- 회현면도 복합건물로 착공
- 농촌 콘텐츠 발굴에 노력

독립운동 시절 김구의 제자로 활동한 후 정치에 입문하여 1980년까지 반공법 등의 제재로 원활하지 않은 정치 생활 끝 5선 의원을 마지막으로 생을 마감하였다. 뜻을 같이한 동지로는 민주화 운동 당시 장준하, 김대중 등이 친한 편이었고 윤보선, 김영삼, 문익환 목사 등 여러 재야 인사들과도 친분을 가지고 있었다.

신민당이 유진산 체제였을 시절, 기존의 타협적인 당의 태도에 반발하는 의원들을 이끌고 선명야당을 위시하여 민주통일당, 즉 제3야당을 창당하여 독자 노선을 구축하였다.

하지만 1965년 양일동 본인이 반공법으로 구속된 적이 있을 정도로 거침없이 국회의원을 탄압하고 반정부 행위를 탄압하는 이중에 선명야당을 위시한 민주통일당을 가만둘 리 없었기에 많은 고초가 뒤따랐다.

1963년 제5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대통령 윤보선은 박정희와 대통령 선거전을 할 당시 '남로당 출신 박정희는 뒤에서 비겁하게 행동하지 말고 남자답게 나와 주먹으로 대결을 하자' 라고 말했을 정도로 박정희에게 격분하여 막말을 한 적도 있다.

박정희 정부시절 독재 타도를 외치며 제3야당 창당을 주도하였다. 김대중 납치 사건 당시 사건에 연루되기도 하였다.

2. 생애[편집]

1912년 12월 30일 전라북도 임피군 동이면 장곶리(현 군산시 서수면 마룡리 하장곤마을)에서 태어났다.

그는 중동중학교 재학 중이던 1930년 광주학생항일운동 동조시위를 주도했다가 학교 당국으로부터 퇴학 처분을 받았으며, 같은 해 3월 오재덕(吳在德) · 이영욱(李永昱)과 함께 중화민국 베이징시로 건너가 백정기 · 정내동(丁來東) 등과 접선, 교류하게 되면서 무정부주의 사상에 경도되었다.

졸업 후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가담하였다가 그는 1931년 일본 도쿄로 건너가 그해 4월 한하연(韓何然) · 최낙종(崔洛鍾) · 정찬진(丁贊鎭) 등의 동지들과 함께 흑우연맹(黑友聯盟)이 주관하는 『흑색신문(黑色新聞)』의 편집위원에 선임되어 무정부주의 사상과 항일의식을 고취하는데 힘썼으며, 1932년 9월에는 마찬가지로 무정부주의 단체인 조선동흥노동동맹(朝鮮東興勞動同盟)에 가입하였다.

〈편집부〉

은행나무 고목제
(서수면 관원리)

서수면 북쪽에는 익산시 웅포면, 함라면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관원리가 있다. 그중에서도 풍요롭고 살기 좋다는 원관원 마을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20여 년 전부터 마을 뒤에 있는 은행나무에 매년 봄 제를 지내고 있다고 한다.

일명 "은행나무고목제" 는 마을의 안녕과 재해와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마을 주민과 외지에 나가 있는 이 마을 출신 모두에게 무사기원을 비는 제사인데 이 때는 주민은 물론 이 마을 출신 모두를 초대하여 마을의 단합과 결속을 다지고 있어 매우 뜻있는 마을행사로 거듭나고 있다.

사진2 보호수 지정안내판

마을주민 어르신 손창식씨(72) 이야기에 따르면 어렸을적 나무속에 든 족제비를 잡기 위해 한 주민이 은행나무에 불을 놓았는데 오래된 고목인지라 삽시간에 불이 번져 불을 끄느라 소방대 까지 출동 하는 등 마을에서 한바탕 소동이 났었다고 그 후 별 탈 없이 은행나무는 속이 비어 있는 상태로 쭉쭉 자라 둘레가 약 5~6미터나 되어 1982년도에 보호수로도 지정되었고 마을 주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받아서인지 가지가 옆으로 20 여 미터나 뻣어나가 우람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는데

나무 밑에 사는 주민(?)들이 가지가 부러지면 집이 부서지게 생겼다고 시에 민원을 제기해 집 쪽의 뻗은 나뭇가지를 잘라내니 나무가 시름시름 말라 죽었고 지금의 나무는 속이 빈 곳에 은행이 떨어져 자연 발아한 자식 나무로 신기하게 여겨 20여년 전 마을 회의에서 마을의 안녕과 화합을 위해 고목제를 지내기로 결의하려 지금까지 한해도 거르지 않고 고목제를 지내오고 있습니다.

사진 고목제 설명(좌 이하범 손창석)

1부 행사로는 은행나무 앞에 제단을 차리고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마을의 안녕과 재해와 질병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해 달라는 제를 지내고 2부 행사는 뒷 풀이로 마을 경로당에 모여 주민들 간에 우애와 화합을 다지는 행사로 진행되고 있지요.

최근 3년간은 코로나19로 고목제를 지낼 수 없었지만 올해는 거리두기도 해제되고 고목제를 다시 지내기를 주민들은 고대하고 있지요.

원관원 마을사람들은(이장 임도영)고목제를 마을축제로 계속 발전시켜 이어갈 것이라고 하며 우리 서수면 지역에 이러한 전통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자부심을 가질만하고 원관원마을 고목제가 서수면의 대표적인 축제로 거듭나길 바란다는 소망을 내비치기도 하였다.

그림 은행나무 안내판 / 사진 은행나무

숲과 더불어 꿈과 끼를 키우는
임피중학교 제73회 졸업식

지난 2023.2.8.(수) 애국지사 춘고(春皐) 이인식 선생의 애국혼과 교육관을 이어받아 '숲과 더불어 꿈과 끼를 키워가는 인권 우호적인 학교' 를 만들어 가고 있는 임피중학교(교장 서진용)가 학부모님과 지역기관, 동문회 선배들이 참석한 가운데 춘고관(강당)에서 제73회 졸업식을 가졌다.

이번 졸업식은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학부모를 비롯한 내빈들이 참석하지 못하다가 3년 만에 학부모와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져 더욱 의미가 컸다. 금년에는 13명의 졸업생이 졸업하여 임피중학교는 총 6,764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었다.

졸업생들은 졸업증서와 학교에서 수여하는 상 외에도 동문회에서 마련한 총동문회장학재단상, 춘고기념사업회이사장상, 총동문회장상 등을 장학증서와 함께 받았으며, 후배 사랑을 실천하며 졸업생 모두에게 매년 장학금을 주고 있는 32회 졸업생 선배로부터 '32회 장학금' 을 수여 받기도 하였다.

또한 지역의 각 기관에서는 졸업생을 격려하기 위해 서수면장상(면장 이유청), 서수우체국장상(우체국장 백혁기), 서수환경지킴이회장상(회장 이정란) 등을 수여하였으며, 서수교회 (담임목사 전재기)에서는 해마다 장학금을 수여하여 지역과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기틀을 마련하는 따뜻한 자리가 되었다.

한편 축사에서 서진용교장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너가 있음에 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상극이 아닌 서로를 챙겨주고 살려주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소소한 일상생활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는 당부 말씀과 함께 "여러분은 미래의 주인공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현재의 주인공이다. 지난 3년 동안 새 소리와 숲 향기 가득한 이곳 임피중학교에서 심고 가꾸었던 꿈과 끼를 맘껏 키우고 펼치기를 바라며, 언제 어디서든 존엄성을 잃지 않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대중으로부터 환영받는 임중인이 되기를 소망한다." 고 말했다.

또한 전재기 학교운영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보살핌과 은덕이라며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고 격려하였다.

서수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공예교실

내무장마을

득자개

석화

성자마을

오일마을

외관원

용회마을

운원마을

하금마을

하용전마을

서수면 사람들(기업)

2022년 서수면 20여개 마을 머그컵 만들기 공예교실
주민 참여도 매우 높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면

방령마을

상장곤마을

신장마을

아이마을

외무장

용성마을

원용귀

장자마을

하장곤마을

호산마을

동군산 농협 박영근(71) 조합장 당선

지난 8일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 동군산 농협 박영근 씨가 당선 연임에 성공하였다.
당선인 박영근 조합장은 경쟁력 있는 조합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며 지역민에게 사랑받는 조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고 소감을 전했다.

마을 NEWS

〈하용전마을〉

〈사진〉 하용전마을 부녀회은 귀농귀촌 마을융화 김장나눔행사를 가졌다.

〈독자개 마을〉

함열여자중학교 교장 취임

독자개마을 출신 이풍길(58. 서수초등/임피중 졸업)씨가 3월 2일자로 함열여중학교 교장에 취임하였다고 합니다.

〈용회마을〉

김덕재씨 국무총리상 수상

용회마을 전 이장 김덕재 씨가 2022년 마을지도자상에 선정되어 국무총리 상을 수상하였다고 합니다.

〈아이마을〉

문병준씨 졸

아이마을에 사시던 서수면 1대 시의원이자 옥구농민항쟁추모회 초대 회장이신 문병준 씨가 향년 88세로 22년 12월 26일 작고 하셨습니다.

<마을탐방> 하금마을

서수면에서 가장 활기차게 마을 사업을 하금마을(이장 임승우)을 찾아가 보았다.

담장 벽 그림 그리기에 열중하는 하금마을 사람들

〈완성된 담장그림〉

〈담장 그림〉

〈마을회의〉

〈동네 청소작업〉

수확량 많다고 "신동진" 벼 퇴출

-농식품부 공공 비축미에서 제외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신동진〉 쌀이 사라지게 생겼다.
지난달 농림식품부가 쌀 과잉생산을 막기위해 다수확품종을 공공비축미 매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자 공급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서수면에서 40년 동안 벼농사를 짓는 채정병(70세,)씨는 맛 좋고 품질이 입증된 〈신동진〉 벼를 퇴출 시키고 수확이 적은 벼를 육성하여 생산을 막아보자는 근시안적인 농업정책을 보면 어쩌구니가 없다며 수확량이 적어 농가소득이 줄어 드는게 뻔한데 혁신을 강조하는 당국이 이런 비효율적인 정책이나 발표하는 걸 보면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여론에 군산시 의회(의장 김영일) "지난해 전북도 전체 〈신동진〉 재배 면적은 6만 ha로 전체 벼 면적의 53%을 차지했고 군산시가 73%에 이른다며 " " 농가소득 증대 차원에서 정부의 우량품종 퇴출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편집국〉

서수면 시온교회 김노근(59세) 목사

어느날 한 밤중 외국인 근로자와 마주친 김 목사

〈사진: 운정마을 시온교회 전경 〉

가어느 날 유난하게 깜깜했던 한 밤중 교회의 문을 두드리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더니 충전을 해달라고 하는 것 같다. 어느 정도 충전이 되자 그 외국인은 지도를 찾아 GPS로 자기집을 찍어주며 여기가 자기 집 인데 찾을 수가 없다고 한다. 평소에는 핸드폰에 자기 위치를 찾아 다녔는데 물건 사러 나왔다가 밤인데다가 휴대폰이 방전되어 자기집(회사 기숙사)을 찾아 2 시간동안 헤메다가 교회 불을 보고 도움을 청하고자 문을 두드 렸단다.

2014년 시온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한 이러한 인연으로 다문화 가정을 보살피며 특히 어린 자녀들에 관심이 남달라 편견을 같지 않고 다 같이 함께 뛰어놀 수 있게 솔선수범하는 목사님에 대한 소문이 자자하여 탐방 인터뷰를 해 보았다.

〈사진: 김명숙 권사 김노근 담임목사〉

어느날 한 밤중 외국인 근로자와 마주친 김 목사

우리교회는 다문화 자녀들이 70%을 상회하는 분포를 보이고 있어요 우리마을에도 아기 울음소리가 끊어진지 오래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어린이 찾기가 어렵지만 여기저기 입 소문인지 익산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주말에는 운동장에서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놀게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만 하더라도 무언가 해야 한다는 생각 밖에 없었고 조금씩 조금씩 시설을 갖추다 보니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 정도는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좁은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어린이 들이 찾아와 놀고 있어 마음 한 편으로는 보람되며 즐거은 마음으로 같이 놀아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야기의 공간인 커피샆을 만들어 지역민과의 유대감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은 서수면에서도 외진 곳이라 커피 한 잔 마실려면 차를 타고 나가야 하는 곳이라 교회내에 커피숍을 만들어 커피 한잔을 마시며 이야기 하며 따뜻한 마음의 정을 나눌 수 있어 좋습니다. 언제든지 커피가 마시고 싶으면 들렸다 가면 된다고 하신다.
인터뷰 내내 김노근 목사님과 김명숙 권사님은 어릴적부터 뛰어놀던 우리마을이 소외되지 않고 우리가 어렸던 시절과 같은 따뜻하고 사람이 사는 마을이 되었으면 하는 아주 소박한 마음가짐에서 진심으로 우러나는 나눔의 정신이 베여 있음을 느끼며 인터뷰를 마쳤다.

〈서수면 마을신문기자 : 이정란 최연호〉

서수면 백제고찰 상주사 신라고찰 보천사

상주사는 백제무왕 7년(606년) 세워져

백제 무왕 7(606년) 신라의 승려 혜공(惠空)이 창건하여 상주사(上住寺)라 하였다고 하나 당시 이 지역은 백제 영토였고 신라와의 치열한 영토전쟁를 벌였던 무왕시대에 신라승려가 창건 하여다고 하니 확실하지는 않다. 1362년(고려 공민왕 11) 혜근(惠勤)이 중창하며 현재 이름으로 바꿨으며 고려말 공민왕이 이 절을 찾아 국가의 안녕을 기원했다고 전한다. 1641년(조선 인조 19) 취계(鷲溪)가 중수하고, 1762년(영조 38)에는 학봉(鶴峯)이 중수하였다. 오늘날에는 특히 나한 기도 도량으로 유명한데 그 유래가 전한다.

1834년(순조 34) 임피현(臨陂縣) 수령 민치록(閔致祿)이 꿈을 꾸기를 하얀 갓을 쓴 세 사람이 나타나 자신들을 높은 곳으로 안내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민치록은 세 번이나 같은 꿈을 꾸자 관리들에게 현에 특별한 일이 있으면 보고하라고 하였다. 며칠 뒤 서포(西浦)에 십육나한을 실은 배가 한 척 닿았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에 민치록은 십육나한을 높은 곳에 있는 이 절에 모셨고 이후 십육나한은 많은 영험을 보였다고 한다.

건물로는 대웅전과 나한전 · 관음전 · 범종각 · 요사채 등이 있다. 이 중 대웅전은 1973년 6월 23일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37호로 지정된 건물이다. 정면 3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 건물로 내부에는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한 삼존불과 영산회상도, 신중 · 지장보살 · 독성 · 칠성 · 산신 등의 탱화가 모셔져 있다. 삼존불 위 닫집에는 용두가 조각되어 있는데, 본래는 2기였으나 1기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이 몰래 가져갔다고 한다. 용마루 위에는 청기와가 2개 얹혀 있으며, 상단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11개의 용두가 놓여 있다.

그밖에 대웅전 안에는 1646년에 제작된 업경대 2기가 있었으나 근래에 도난당하였다. 이 업경대는 거울 중앙의 둥근 구멍에 '순치 2년'이라는 연호가 기록되어 있었다. 하나는 크기가 112cm이고, 다른 하나는 60cm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상주사 [上柱寺]

보천사

대한불교조계종에 속한다. 신라시대에 창건하였다고 하나 창건연대는 미상이다.

조선시대에는 유문(有聞) 등이 머물면서 절을 중수하였으며, 민족항일기에 사세(寺勢)가 기울어진 틈을 타서 일본인이 법당을 매입하여 일본으로 옮겨갔다고 한다. 이때 불상과 불구(佛具)는 숭림사(崇林寺)로 옮겨갔고 절은 폐사가 되었다. 최근에 옛 절터 옆의 언덕에 새 절을 중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당우로는 대웅전, 극락전, 요사채, 객사(客舍) 등이 있다. 문화재로는 1689년(숙종 15)에 입적(入寂)한 유문의 부도(浮屠)인 축계당사리탑(鷲溪堂舍利塔)과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부도 2기가 있다. 이 중 축계당사리탑은 옛 절터에서 옮겨온 것인데, 그 때 사리함이 나와서 군산대학 박물관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또한 새로 세운 5층 석탑이 부도 앞에 있다.

출처:보천사 [寶泉寺]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물이 아파하는 소리

석화 최환엽

돌이 물에 슬리우는 소리
물이 돌에 부딪는 소리
밤을 새워
스살 스살 흐억거리다

사람아
아들로 아버지의 매를 맞아 본 적 있으며
아버지로 아들의 종아리에 회초리를 대본 적 있더냐

매를 치고
아버지
그 선한 눈이 젖어
연신 태우는 담배개비 든 손
가늘게 떠시던 모습을 본 아들은
다시는 넘지 않을 천율을 뼈에 새겼다

물이 돌을 때리고
맞은 돌보다
때린 물이 더 아파하는 섬진강 소리를 들으며
아주 오래
뵙지를 못하는 아버지

이른 아침 그 강가에서
나는 가을비처럼 울었다

서랑댕이와 아리댕이

그 옛날 서수 사거리는 "서랑댕이"라 불렸고
아이리(아이마을)는 "아리댕이"라 불렸다고 합니다.
서랑댕이는 서낭당이 근처에 있어서
서낭(랑)댕이라 불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어른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조선시대 만경이남
사람들은 과거보러 만경나루를 건너
서랑댕이를 지나서 워메장터(현 가자터 뒤에
워메장터가 있었다 함)에 들러
허기를 달래고 금강 화게나루에서 서울로 향했다고
합니다.

세모와 네모

사십년전 어느날
세모와 네모는 한 공간에서 살게 되었지요.
세모는
나와 다른 네모가 마땅치 못했고
부딪치고 찌르며
서로에게 상처와 흉터를 남겨 주었죠

상처 위에 딱지가 군살로 여물어 갈 때쯤
피해자는 항상 나라고 생각했던 네모는
세모도 그동안 짬 힘들었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같은 성향의 친구를 만났더라면
네모도 그리 나쁜 친구는 아니었으니까요
노력과 절제속에 서로 다름이 함께했기에
나와 다른 세상이 존재함을 알게 되였고
세모와 네모는 동그라미로 성장했답니다.

그리움의 꽃

석화마을 강청호

꽃송이 껴안으면
왜
눈물이 돌까

논둑의 개망초 꽃
바람에 살랑대도
왜
눈물이 돌까

탄식도 강 너울에 흐르며
달빛마저
사랑으로 수런 대더라

파란 서슬에 놀래
꽃은
제 홀로 수런 대더라

색칠공부로 뇌건강 치매예방을

서수면에 사시는 어르신께서 취미로 뇌 건강에도 좋고 치매 예방에도 좋은 그림그리기를 하신다기에 마을신문 기자단이 취재해 보았습니다.외무장 마을에 사시는 노일순(88세)는 거실에서 그림책을 펼처 놓고 열심히 색 칠을 하고 있었고. 거실 한 쪽에는 지금까지 완성한 것으로 보이는 그림책이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어르신 그림그리기를 좋아 하시나 봐요 옛날에 시집 오기 전에 그림을 잘 그리셨나요?

아니지라 그런게 아니고 한 겨울에 일도 못하고 소일 거리도 없는데 우리 애들이 건강에 좋다고 그림책을 한 보따리 사와서 조금씩 하다보니까 재미있기도 하고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하다 본께 이렇게 많이 했지라.

할머니 할머니는 언제부터 혼자 되셨나요? 그리고 자재분들 몇이나 두셨고요?

응 긍게 우리 바깥 양반은 일 하다 심장바비로 내가 48세 때 저 세상으로 가벼렸고만.

아들 둘에 딸 셋을 끼우느라 참 힘들 엇 제 고생헌걸 말 할 것 같으면 말 로는 다 못허지

근디 인제 다들 잘 되야서 괜찬혀 다들 밥벌이 잘들 허고 있응게..

어르신 혼자만 하시지 마시고 동네 어르신들과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 그래서 나도 몇 번 이야기 해 보았는데 잘 안되네 이번에 경로당이 생기면 한 번 더 같이 해보자고 할려고 예 어르신 고맙 습니다. 오래 오래 건강 하세요!! 인터뷰를 마치자 셋째 딸 김은정(56)사위 최문섭(63)가 어머니를 뵈러 들어온다.

서수교차로 쓰레기줍기 행사 마을청소도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팀과 서수환경지킴이
-아이마을도 정기적으로 마을청소를 하기로

서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운영위원회 와 서수면 환경지킴이는 지난 3월 11일 서수면 오거리에서 부터 군산 익산 간 고속화도로 교차로까지 쓰레기 줍기 행사’ 를 개최하였다.

또한 같은 날 아이마을(이장:이운기)도 오전 마을 쓰레기 청소를 실시 하였다, 아이마을은 정기적으로 마을 쓰레기 청소를 실시 하기로 하고 15여명의 마을 주민이 동참 쓰레기장 청소를 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서수환경지킴이 이정란 회장과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최연호 운영위원장을 비롯 이종화 부위원장 백혁기 우체국장등 20여명의 회원이 참여 도로변에 널려져 있는 비닐 등 쓰레기 줍기 행사를 진행하였다.

한편 쓰레기 줍기 행사를 마친 서수환경지킴이 이정란 회장은 마을이 깨끗해야 외부 사람들이 찾아 온다며 우리 마을은 우리가 청소한다는 슬로건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날을 정해 일제히 청소하는 서수면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하겠다고 말했다.

〈편집국〉 〈아이마을 청소사진제공〉

공고

서수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운영(추진)위원회 공고 제 2023-2호

서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이에 따라 사업완료 이후 주요 시설을 운영☒관리할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운영위원(이사)" 을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3. 3. 1. ~ 4. 31 (18시까지)
2. **접 수 처** : (방문접수)서수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운영위원회사무실
   (☎ 사무국장 010-9286-8239/010-4643-1149)
   (E-mail) 사무국장(leejr8239@naver.com)
3. **모집대상** : 서수면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면민
4. **신청요건**
   가. 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수면 내에 있는 만 19세 이상 거주민
   나. 서수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운영을 위한 일정금액 이상의 후원이 가능한 자
   다. 시설물 운영 · 관리에 다년간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관련 자격증을 소유한 자
   라. 서수면에 소재하고 있으며 서수면 발전에 적극적인 기업인 대표

5. **모집인원** : 10인 이내
6. **선정방법** : 신청서 검토 후 자체 선정(개별통보)
   모집인원 초과시 역량, 주민대표성, 전문성 등 고려 선정
7.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제출서류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홈페이지
   http://)https://cafe.naver.com/sacbu)에서 다운 받아 사용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수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운영위원회로 문의 바랍니다.

2023. 2. 1.

서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운영(추진)위원장